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社說
社屋落成日의 誓願

一

本社의 新築社屋의 落成을 祝하는 今日에잇서서 우리는 滿天下讀者의 압헤서 歷史的으로 本社의 精神이오, 또한 今日까지實行해오던 다섯가지 誓願을 새로히再認識하려합니다。朝鮮日報는 朝鮮의 公器요、朝鮮民衆의 公器니 朝鮮民衆의 하고저하는바와 하고저아니하는바를 가장 힘잇고、가장分明하게 表現함으로써 첫 任務를 삼아왓습니다。朝鮮民衆이 하고저하는바를 主張하되 貫徹되기까지 그침이 업고、하고저아니하는바를 反對하되 또한 貫徹되기까지 그침이 업는 곳에 本報의 使命이 잇고 至誠이잇고 勇氣가 잇습니다。本報는 이時代、이 民衆의 言論機關으로서의 眞正한 任務를 把握하고、實現함으로 本報의 民族奉仕의第一任務를 實行하기를 誓願합니다。

二

우리는 社會의 正常한 發達은 社會正義의 確立에 잇다고 밋습니다。社會正義를 確立하야 그權威로 하여금 社會生活의 指導原理가 되게함에는 秋霜烈日가튼 彰善擴惡、斥邪顯正의 言論이 必要하다고 밋습니다。不幸히 아직 우리社會에는 因循과 狹私가 權威를 잡아 善이 반드시 彰하지못하고、惡이 반드시 擯하지아니하니 本報는 이로부터 더욱더욱 善이어든 彰하고 惡이어든 擯하야 社會의 風紀와 人心의 淨化를 爲하야는 아모것도 아낌도 업고、돌아봄도 업고、머뭇거림도 업는 正言報族의 第二任務를 遂行할것을 誓願합니다。

三

셋재로 本報는 至公至正하야 秋毫의 私도 업는 傳統的精神을 더욱 發揮하야 富貴도 淫치못하고、威武도 屈치 못하고、비록 覇王을 酹할지언정 오직 公이오、오직 正인 報道와 論評으로 勇往邁進할것을 誓願합니다。우리는 어느 個人이나 어느 黨派에 偏하는 者가 아니어니와 또 民族公義、社會公義를 爲하는者면 어느 個人이나 어느 黨派에게도 그편이 되어 盡力하려합니다。이리하야 우리는 어름어름 우물주물하는 朝鮮의 不祥한 氣風을 一掃하기를 期합니다。『그러타』、『아니다』、『올타』、『그르다』가 分明한 곳에서만 眞正한 正義와 自由가 生長할것으로 밋기때문입니다●

四

다음에 우리는 文化가 民族의 精神的生命인줄을 確信하는者며 또 過去에 잇서서 高級한 文化의 創造者요、世界文化의 吸收者인 우리 朝鮮人은 將來에 반드시 特殊文化의 母體가 되리라는 信念을 가지는者입니다。그러하기 때문에 傳統的文化의 保存集成을 一翼으로 하고、世界文化의 廣求消化를 다른 一翼으로 하는 朝鮮의 文化運動은 우리네의 生命線問題라고 밋습니다。本報는이 文化運動을 爲하야 誠을 彈하고 力을 竭하기를 誓願하는바며、끗흐로 우리는 文化가 民族의 精神的生命임과 가치 經濟的生活은 우리네의 肉體的生命이 될뿐더러 또한 精神的文化建設의 基礎가 됨을 確信하고、朝鮮의 産業發達──農村의 富力培養과 都市의 商工化를 爲하야──그中에서도 特히 工業朝鮮建設의 使命을 깁히 自覺하야 이 機運의 促成에 全力을 다할것을 誓願합니다。

五

이 모양으로 우리는 本社屋落成을 배는 오늘에 잇서서

(一) 本報는 民衆의 公器로서 民族的意思의 表現者、社會에 對한 絶對奉仕者일것

(二) 彰善擴惡、斥邪顯正의 社會正義의 擁護者일것

(三) 公正無私한 報道者、批判者로서의 眞正한 輿論의 代表者일것、

(四) 內外文化의 保存吸收集大成에 對한 助長者일것、

(五) 産業運動의 促進者로서 民衆의 物質的生存權의擁護者일것、

等等 다섯가지를 天下大衆압헤 또 天下大衆으로 더부러 誓願하는바입니다。

이리하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社屋의 落成을 배는 오늘을 期하야 精神的社屋의 基礎가 그보다 더 굿고 精神的社屋의 規模가 그보다 더 크고、精神的社屋의永遠無窮함이 그보다 더 길것을 굿세게 意識하며、再認識하고、敬虔한 喜悅과 自負를 느끼는바이니 압흐로 本報가 이 崇高하고 重한 使命을 完全히 遂行하도록 敢히 天下大衆의 聲援과 愛護를 懇請하여마지안는바입니다。

世界大建築物

英國篇
나숑날·가레리 (倫敦)
버킹감宮殿 同
웨스트민스터寺院 同
國會議事堂 同

세인트·폴·카데드랄 同
만숀하우스 同
런던塔 同
大英博物館 同
셀프릿지스 同
알버드公의大紀念塔 同
크리스탈·파레이스 (水晶宮)

캔타베리·카데드랄 (倫敦郊外)
라운홀 (만체스터)
미드랜드·호텔 同
만체스터·카데드랄 同
에딘바라城 (에딘바라)
벨파스트市廳舍 (아일랜드)

本社新社屋落成式과各界祝辭

朝鮮人文化의 進步의象徵
韓龍雲

나는 日前에 朝鮮日報社의 新築社屋을 보고 첫번에 印象되것이 朝鮮에서 新然한 朝鮮사람의 힘으로써된 그와가튼 宏壯한 建物이 드믄것이며 朝鮮日報社가 그와가튼 宏壯한 建物을 新築하게된것은 조선사람의 文化程度가 進步된 象徵이라고 봅니다 나는 方社長이 한혼 金鑛을 내여서 朝鮮日報를 經營한다는 말을 듯고잇섯는데 이번에 그와가튼 宏壯한 建物이 번듯이 나타나게됨에 따라 果然 그이는 거룩한 事業을 하는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늣김을 더 切實히 늣기게되엿습니다 나는 이번 新築社屋이 落成됨을보고 無限히 깃버하는同時에 感謝함을 마지안습니다。그러고 아프로 朝鮮日報가 우리朝鮮社會를 爲하야 더욱 만흔 活動과 發展이 잇서주기를 바래고 빕니다。

民衆의警鐘되라
朝鮮監理會總理師 梁柱三

朝鮮日報 新築落成式에對하야 나는 感謝할망으로 그前途를祝福드립니다。여러가지로 困難한 事情을 克服하고 朝鮮日報가오늘과가튼 基礎를 닥거되것은朝鮮사람이 다함께 깃버할慶事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압흐로筆陣을 더욱 整齊하야 社會의警鐘이되고 文化發展에 貢獻이만키를 希望합니다

過去蓄積된經驗의産物
朝鮮語學會李克魯

貴報가 落成記念會를 擧行한다고요? 實로致賀할일입니다。貴報는過去에 잇서서 어느新聞보다도誕生爾來 十數年동안을 가진波瀾과 온갓風霜을 격근것은 萬人周知의 事實로서 今日의慶事는全혀 貴報過去가 蓄積한經驗의賜物이 아닌가합니다。一個人도 幼、少年期에 苦生을 해야末年에 훌륭한 人格을完成하는것과同一한 意味에서 貴報의 今日을 생각하니 當然의當然한 일이同時참으로 感慨無量합니다。貴社社屋이 인제는 그럭奏業固한磐石우헤 버젓하게섯스니 그 事業도 따라서 그와마찬가지로 隆興해갈줄로 밋습니다。그런데 한가지 切實히 期待하는바는貴報가 朝鮮文으로된 新聞이마큼 朝鮮文化建設에잇서서 實로重大한責任이 잇슴을미드며 또貴社社屋이 가장完備한現代文明을象徵하는新築的 그것이나마지 「한글」 綴字法에잇서도 同一한意味로서 善處해주시기에 努力을애끼지말어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그리고 今後로도 貴報의存在가 더욱더욱빗나기를 希望하는바입니다。

世界的大新聞되라
鮮一紙物株式會社 和信株式會社 社長 朴興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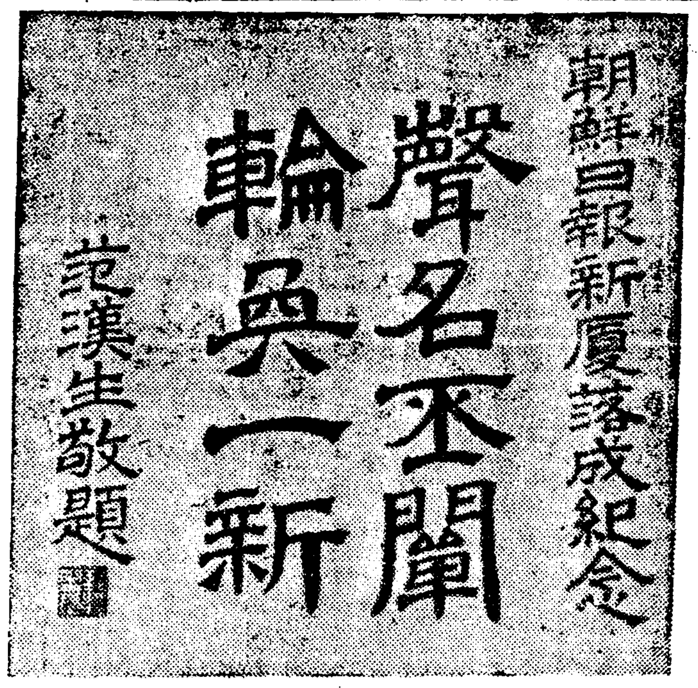
朝鮮新聞紙上에 燦爛한 歷史를 가지고 朝鮮民衆을爲하야 多大한 貢獻을하여오면서도 財政的으로 又는 經營上으로 惠澤을밧지못하얏든 朝鮮日報가 今日에이르러는 朝鮮民間新聞界의 最大의 雄壯한 建築과設備를가지게되어 이에그落成을보게된것은 過去十年間歷代幹部의 經營方針을 局外者로서 哀悲를가리하다시피하여온 나로서는 實로欣快를不禁하는同時에 全朝鮮二千萬民衆과함께 眞心으로 祝賀하는바입니다 朝鮮日報가 諸般艱難을打開하고 今日의基礎를 確立한것은 밧그로愛讀者諸位의 支持가잇고 안으로 幹部以下各社員의 努力이잇슴은 不問可知지만은그中에도 特히現社長方應謨氏가五十萬圓의 巨額을 아낌업시提供하야 社運을 磐石에세운功이가장 크다고봅니다 方社長의 豪膽과 意氣에對하야 感嘆又感謝하는바입니다 願컨대 新社屋의 落成을 契機로하야 社運이 一層隆昌하야 世界的大新聞이되며 朝鮮社會를 中興하는 一大原動力이되기를바랍니다

同業者로써祝賀
朝鮮中央日報社長 呂運亨

朝鮮의言論機關은 現下非常情勢의 艱難中에서도 그勢力은日益伸長되이 事實이니 이는非常情勢임스록 言論機關의 任務가 더욱 重大化함을 說明한다。故에 우리는 同業朝鮮日報의社屋新築落成式을 擧行함에 際하얏스나 이는 同社勢의 더욱擴大、充實化를 意味하는 同時에 朝鮮言論界의基礎가 더욱鞏固해지는 一面을 提示함이라는 見地에서 衷心으로 祝賀를 드리나니 社屋의 外觀이 새롭고、壯大함과가티 앞으로 그實力과 精神이 더욱 充實하게 發展하기를 期待하고 도한 希望한다

民衆의指導者되라
延專校副校長 俞億兼

毎事에誠意만가지고 꾸준히努力하면 못할일이업다는한(象徵)을 나는朝鮮日報社에서봅니다 朝鮮日報는 그동안物質的으로精神的으로함께 基礎가堅固해지고 꾸준히活動하는일과 新聞局이날로새로워짐에대하야는 祝賀를 마지안는바입니다 今後더욱 바라고시픈일은 特色잇는新聞을 맨들어달라는것과趣味보다도社會教育方面에 注力해서民衆의 修養指導의任을다해주시기를바라고십습니다 그래서 民衆과密接한 關係를가지고民衆이利用할수잇는 新聞을만드러달라고바라고십습니다 또한記事報道에잇서서도讀者를 놉흔水準으로 올녀것을 領導하余하여서 一般趣味에 迎合하는것보담도 一定한文的目標를向하야 꾸준히 나가기를 마주막으로附託하고 日後에더욱 社運이 繁昌하기를 祝賀하는바입니다



◇駐京中國總領事范漢生氏祝筆

在京各國領事祝辭

貴重한責任履行하라
英國總領事 D.W.커모드

朝鮮日報의新築落成式은 同時에 朝鮮日報의 劃期的發展의序幕이되기를 祝福합니다 今日의新聞의文化的使命은 實로 甚大한바잇스나 그使命을 잘實行하면 往往히 社會의福利를 增進하는一面에 社會禍를 招來하는수도잇는것은 注意할點입니다 그러나 朝鮮日報는 從來에도그러한것과한가지로 朝鮮民衆의文化向上과 福利增進을爲하야 極히 有用한存在가 될것을밋고、一層前途에 繁榮이잇기를 眞心으로 希望하는바입니다 (寫眞은 커모드氏)

前途進運祝賀
白耳義名譽領事 에미르·마르텔

朝鮮日報社長 閣下

新築落成式을마즘에잇서 나는 眞心으로 朝鮮日報社長및社員諸氏에게祝賀를드립니다 더욱이朝鮮日報가 今年으로써 十五週年과 紙齡五千號의盛事를함께 마지한데對하야는 一層그前途가洋洋하야社運의進運이잇슬것을 期待하야마지안는바입니다 【寫眞은마르텔氏】

(寫眞은 范漢生氏)

眞心으로祝福
蘇聯邦總領事 『마르체프』

朝鮮日報社의 新築落成式을眞心으로 祝福하는同時에 社運이一層繁榮하야 朝鮮人의 生活向上에有効한 奉仕者가되는것을期待합니다 (寫眞은 마르체프氏)

祝辭
(駐京米國總領事) WM.R.랭돈氏

The Chosen Ilbo,
Seoul.

Dear Sirs:

On the occasion of the completion of your new building and of your removal to it, indicating the culmination of a period of successful journalistic enterprise on your part, I extend to you my congratulations and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Yours very truly,
Wm. R. Langdon
American Consul.

前途의進運을
佛領事듀보스크

朝鮮日報社長足下

新築落成式과 十五週年을 한께마지한 朝鮮日報의進運이 더욱光輝잇기를 衷心으로써 祝賀하야마지안는바입니다

(寫眞은 듀보스크氏)

Looking Forward

On the occasion of celebrating the completion of the new building for the editing, managing, printing and publishing offices of the Chosun-Ilbo, the Korea Daily news, that is founded and edited by and for the people of Korea we find it advisable to remind the public of the aim and purpose of this institution.

Since its birth in April, 1920 to report in its columns the delightful news of the historical discussions on the then supposed reconstruction of the post-war world, which has unfortunately been proved utterly disappointing, the Chosun-Ilbo has firmly and steadily been clearing its way through struggles and difficulties in order to carry out its duty as a reliable informer of the home and world occurrances, as a promoter of political and social reforms and as an advisor to the cultural and industrial movements. That all this efforts has not been done in vain is happily testified by the approbation of the people of this land which is shown through the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its subscribers: Chosun-Ilbo actually enjoys the largest circulation in this land.

With all this, howevea, it feels that it is still not very far from the spot whence it has made its start, its goal being not yet in sight: As the people of korea is still at the period of re-genesis upon its devastated ruins of history, the Chosun Ilbo's services done hitherto is nothing but a prologue as compared to what is going to be done hereafter.

Social as well as individual justice must be firmly established and protected. Every branch of culture must be cultivated on the soil of tradition, ever assimilating the new elements wisely and assiduously taken from outside. Industrialization is another urgent and important item, moral purification of the individual, of the family and of the society at large coming next to none in its life-giving effect.

As to political matters,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this land is destined to remain in the "pre-political" stage for the time being.

Onward and upward, ever full of hope and energy the chosun Ilbo will go for the aim and purpose of contributing its share as for the re-genesis of the land of morning calm.

大衆的實費診療
入院室完備無時往診
大衆醫院
內科小兒科外科産婦人科花柳病科耳鼻咽喉科皮膚科各科專門醫分擔診療
京城府貫鐵洞一三五番地
電話光化門五二四(오이사)

京城府鍾路三丁目八〇(종로사거리)
金然權齒科醫院
電話光化門一〇七九番

京城府慶雲洞
小兒科專門 洪濟醫院
劉洪鍾
電光五五五六番

淋疾特効 괴구도ー리
感氣直効 네오패독산 總販賣元
京城府鍾路四街里
三省堂藥房
電話光化門八一三番
振替京城六四六六番

京城府鍾路二丁目三五
天風堂藥局
電光二二四四番
振替京城六一一二番

京城府鍾路二丁目二一
益救 理經保胎丸 製造本浦
普仁堂藥房
電光一二一六 振替京城五一六一

京城府鍾路二丁目
白楊堂藥房
電話光一九三番

京城安國洞一五五番地
産科婦人科 許信醫院
電話光化門四九一番

京城府公平洞一番地
高永珣內科醫院
電話光化門一六二六番

醫學博士 任明宰
安洞醫院 內科小兒科
京城府安國洞一六三(電話一五一番)

京城金弘璿內科醫院
京城府中學洞二十六番地
電話光化門三一三番

眼科專門 安國醫院
趙昺榮
電話光化門一八五五番

京城府樂園洞一三七番地
耳鼻咽喉科 沈相天醫院
電話光化門一四九六番

京城府觀底洞五五ノ一
咸濟醫院
東亞醫學研究會長 金明汝
電話光化門一四六六番

內科、小兒科、神經科、外科皮膚科、花柳病科、眼科、耳鼻咽喉科、齒科、口腔科 以上各科專門醫師分擔診療
京城鍾路二丁目十三番地
社會營民衆醫院
電話光化門二五五七番

京城府鍾路四丁目三一番地
天浩堂醫院
電話光化門二八三番

京城府授恩洞九二番地
進誠堂醫院
女醫 鄭子英
電話光化門一五三三番

日滿蘇三國委員會案
蘇政府贊意表示
유蘇聯大使、廣田外相에게回訓傳達
今年中에實現을企圖

【電通東京電話】日滿蘇三國共同委員會設置에對해서는 去二十六日의 廣田外相、유레네프大使會談에서 原則的으로 意見이 一致되엿슴으로 유레네프大使로부터 本國政府에 請訓이던바 五日 莫斯科政府로부터 回訓이 到着하엿스므로 유레네프大使는 右訓令에基하야 五日午後三時半外務省에 廣田外相을 訪問하고 日滿蘇三國共同委員會는 滿蘇國境에잇서서의 不愉快하고不必要한 紛爭發生을 防止하고 또紛爭이 發生한 境遇에잇서도 局地的으로 迅速히 解決을 圖하고 事態의 擴大防止에 資하는바큰것임으로써 莫斯科政府에서도 設立에贊成의 意를表한다는旨의回訓에接하엿다는旨의正式回答을 傳達하고다시 『滿洲國側의 意向도聽取할必要가잇스므로 廣田外相이滿洲國側에 對하야 斡旋의勞를 取해달라』는旨를懇請하고同五時 辭去하엿다 따라서廣田外相은 近日中에 駐滿洲國大使의來訪을 求하야日蘇兩國의 意向을 傳하고 本國政府에 請訓을依賴하야 滿洲國側의回答到着을 기다려 再次유레네프 蘇大使의 來訪을求한다음 各各委員會의 組織權限에關한 具體案을 提示하고드듸여 本格的交涉을 開始하기로되엇는데 滿洲國側에서도勿論異議가 업는바이므로 今年中에는 實現을보게 될것으로豫想되게되엇다 (寫眞은 유레네프大使)

蘇聯極東兵力의 三分一縮減要求?
三國委員會의設置에對한 外務省의大體方針

【電通東京電話】日滿蘇三國委員會設置에 對해서는 昭和七年十二月 蘇聯側의 不可侵條約締結提議에 對하야 日本側에서對案으로 提出한것인데 日本側은大體當時의 案을提出하야 蘇聯側의提案과 比較考察한다음 最後案을 決定할方針인바 外務省의腹案은 大體如左한것이다

一、中央委員會를 哈爾賓地方委員會를 綏芬河 大黑河 東寧 滿洲里等 國境要地數個所에常置할것

一、紛爭이 發生할境遇에 原則的으로 地方委員會에서 協議解決하고 解決困難할 境遇에는 中央委員會에 附議할것中央委員會에서도 解決不能할境遇에는 外交交涉에옴길것

一、委員會는 三國政府代表及現地委員으로써組織할것

그리고 國境의 紛爭은 滿蘇國境線이 不確定한것과 蘇聯側이 多大한 兵員을 集中하고잇는데 起因하므로 廣田外相은 同委員會의 設置와 同時에 國境線의 確定及國境에잇서서의 撤兵問題에 對해서도協議를行할方針이다.蘇聯側의極東에 對한增兵은 滿洲事變後 顯著한바잇서 現在에잇서서는兵員二十三萬 飛行機八百 戰車七百이란巨大한 兵力을가지고 잇서서 이것때문에 滿蘇國境의 緊迫한 空氣를 醞成하고잇슴으로日本側에서는 蘇聯兵力의 三分之一程度의 縮減을 要求하고또國境委員會의 新設에 依하야滿蘇國境의 確定을 行하야 禍根一掃를 圖할것으로보인다

時局收拾困難으로 汪氏隱退를決意
歐米派反日派의攻擊에傷心
中政會議는飜意懇請

【上海五日發聯合】行政院長兼外交部長汪精衛氏는今回 病을理由로 隱退決意를 굿게하엿다는說이 有力하게 傳한다그主要한理由는 汪氏는 北中問題 其他에 對하야 孫科 宇子文等 反日派及西南派의 執拗한 攻擊과 陰險卑劣한 敵本主義的策動에 傷心하고잇던차에 다시 今回『新生』不敬事件處理에 又復此汪派策動의 絶好한 道具된것에 全혀 收拾할 氣力을 일헛다고보인다 그런데 今回 汪氏의 辭職說에 關聯하야 一般으로難局을 汪氏一人에 負케하야 自己의榮達만을 策하는 蔣介石派反汪派등은 國家的責任感이 缺如한것이라는 非難攻擊의소리가더 노파지고잇다

【南京五日發聯合】汪精衛氏는身病으로 劇務에 堪當치못한다는理由로 辭意를 굿게하야 三日入京한 唐有壬氏에게 付託하야中央에 辭表를 提出하엿다 따라서 四日 中央政治會議는 右에對하야 協議한結果 時局이더욱 多端한이때 汪氏의 努力에 期待하는바만타고 飜意를 懇請하기로 決定하고 그旨를 即時上海에 病臥中인 汪精衛氏에게傳達하엿다 (寫眞은 汪氏)

林陸相首相訪問

【東京電話聯合】林陸相은五日의閣議散會後 岡田首相과 會見하고 國體明徵의徹底에 關하야陸軍部內의 空氣를詳細히 說明하야首相의 善處를要望하고 또日滿經濟共同委員會及 新生不敬事件에關한 軍의方針에 對하야說明諒解를 求한後午後一時 辭去하엿다

一事一言
落成 長白山人

落成은 깃븜이다。한 가래밥의 흙을 뜰 때에 우리 마음속에 먹엇던 그림대로 實現된 깃븜이 곳 落成의 깃븜이다。맨처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이러이러한 집을 지겟다하는 그림이 떠 오를 때、그것은 空想이나 幻想과 아모境界도 업는 어렴풋한 한 생각에 지나지못하지마는 이것이木手와 石手와 泥匠과 도배자와 毛東들의 技師의 設計와 部片手의 指揮미에서 하는 勞役의過程을지나서 처음에 마음먹엇던집이 일우어질 때에 느끼는것이 落成의 깃븜이다。이 落成의 깃븜을 보지못하고 흙어저버리는생각이 얼마나만흔가。를 생각하면 落成의 깃븜이 더욱 클것이오、그設計와 建築中에 苦心慘憺함이 만흐면 만흘사록 落成의 깃븜은 더욱 큰것이다。

사람이 世上에 나매 누구는 적으나 크나 한 두가지 그림을 안 가진 이가 잇는가。한 家族으로도 그러하고 한 民族으로도 그러하다。다만 그 氣運과 實力을 따라 或은 草家三間을 그리고 或은 廣厦千萬間을 그리고 或은 大帝國을 그리고 或은 地上의 天國을 그리는것이다。그中에도 草家三間程度의 落成의 깃븜도 맛보아 보지못하는 흙어저버리는 生命이 얼마나 만흔가。廣厦千萬間을 마음에그리기만하는사람도 잇나니 建築中에서는 아니나는 모양이다。우선 생각이始初가 아닌가。마음에 그림이始初의 흙을 파는것이 起工이아닌가。그리고 날마다 꾸준히흙한줌、못 한 개 봇치고 박고 하는것이 工事의 進行이라는것이아닌가。이 갑갑하고 지리한 『흙 한 줌、못 한 개』가 쌓이는것이 歲月을 지나는 동안에 落成의 깃븜이라는 거의意外와가튼 깃븜을 사오는것이아닌가。사람들아。적으나 크나 한落成의 안 하려는가。

人事‧集會

▲李漢泰氏(本社營業部) 營業生十五名引率하고 本社見學次來社

▲崔正奎氏 本社落成祝賀次來社

◇今日重要記事目次

面 記事及寫眞
本紙 一面 社說、祝辭
附錄其一、一面 寫眞(本社全景 大講堂)
同 二、三面 寫眞(本社內容總攬)
附錄其二、一面 本社現勢
同 二面 祝辭
同 朝鮮新聞史 (安在鴻)
附錄其三 三面 地方人士祝辭
一、二、三、四面 新文化建設策
附錄其四、一面 祝辭
同 古建物巡禮 (湖岩)
同 二、三面 朝鮮重要建物언파레이드

蔣作賓駐日大使 歸國後辭任?

【東京電話聯合】駐日中國大使蔣作賓氏는 岡田首相을 爲始하야各大臣을 歷訪하고 드듸어 五日 歸國의 途에오르게되엇다同大使는 日本朝野各方面의 意向을 打診한 結果를 中央政府에 報告하는것은 그重大使命이되어잇는바 廣田外相과의 會見에는 『約一個月豫定으로 歸國하는데 是旅行으로 多少 延期될는지도 모르겟다』고 辭任에對하야 明論한意思表示를 하고 個人的으로도 北中事件의 關係도잇서서 이것을 機會로 辭任할것이 아닌가 觀測되다 一方 國民政府에서는 駐日大使의 更迭을 行하야 對日外交의 積極的轉換을考慮하고잇는 模樣도 잇슴으로中央政府 今後의 對日態度의 是正與否를 卜할 證左라고보히어 極히 注目되다

日滿經濟協定案 調印同時에全文公表

【東京電話聯合】日滿共同經濟委員會設置協定은 十四、五日頃新京에서 調印할 豫定인데 右調印과 同時에 外務省에서는 協定案全文을 公表하고 또 日滿兩國이 政治的不可分關係로부터 더 經濟的緊密關係를 確保하게된 主旨를 聲明할터이다

獨逸輸出振興策內容
基金總額十億馬克을設定하고
大大的떰핑을計畫

【伯林發電】獨逸政府가 今回輸出振興基金을 設定하야 産業界의 全能力을擧하야 獨逸商品의世界市場進出을 圖하야 再軍備其他 必要한 原料品 輸入資金確保에 進出키로 되엇다함은 旣報와갓거니와 去一日에 히틀러總統署名下에 公布된 法律要旨는 如左하다。

一、獨逸政府는 輸出振興基金을設定하야 輸出産業을 助成하야써 輸出의振興을 圖할것

一、基金은 總額十億마-크馬克으로할것

一、國民經濟相에對하야基金의財源을捻出하기爲하야 新稅賦課의權限을 賦與할것

一、基金十億馬克의 配定은 産業部門에 七億馬克、金割引銀行에 三億馬克으로함

一、各産業部門內의 分擔額은商業會議所가 各部의 取引高를 基準으로 決定하고 織物部門은 一億三千五百萬馬克을分擔하기로할것

一、金割引銀行에서는 凍結馬克貨의處分等에依한 利潤을充當할것

夕刊後市況 五日

◆大阪 新期 當配◆
大新 八二九〇(不變)
鐘新 一一四二〇(二〇低)
日産 七一八〇(五〇低)
東新 一三五七〇(二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五八六〇〇 先限 五七六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九一〇 先限 五九五〇

「日本綿業發達은 結局米國의利益」
太平洋關係諸協會報告

【電通紐育四日發】太平洋關係諸協會의 米國常務員은 日本의産業 特히綿業과 米國의關係에關하야 四日如左한 報告를發表하야 日本의 綿業發達이 結局米國의利益인것을 强調하엿다 日本의•通商擴張은 米國의 輸出을 害하지안코 도로혀이것을助長하엿다 이點은 米國의 綿紡織業者 一部의 杞憂는 事實에 反하는것이다 日本의綿業의 旺盛은 全米의 對日棉輸出이 增加로들어나 日本의綿布輸出이 增加되면될사록米國의一般商品의 對日輸出이 이에伴하야 殷盛하게된다 米國의原料品을 國內生産品의需用을滿足시키는程度에 抑制하려는案과 如한것은 消極的行爲이다 米國은右와如한 對日輸出을 維持함에는 日本과의相互的關係를 깁게하는것이繁榮維持를爲하야 必要하다

北中國의新情勢로 列國對中方針轉換
南中權益確保와經濟的進出에積極努力
日本은歐米派策動을警戒

【電通北平五日發】北中에잇서서의 新情勢에依하야 列國側從來의對中方針은 一大轉換할수밧게업시되엇슴이 明白히 看取된다即

一、北中의 日中政治的 經濟的提携가 極히 鞏固하게된때문에 列國의 對中進出은 벌서日本에 追隨할수가업고 顯著히 後退를 感하게되엇다

一、이까닭에 列國은 南方各地의 勢力分野確保에對하야 特殊한 考慮가必要하고 北中은 日本에 맛길밧게업다는 認識을 强化하게되엇다

一、即 列國은 南京政府部內歐米派復活을 企圖하야 條約上의權益確保에 努力하고 特히長江沿岸及 四川、廣東、雲南各地方에 經濟的進出을 圖하야 北中後退를 南中에서 補償하려는것이 明瞭하다 그러나 萬若 이結果 南中國의經濟的分割을 誘致한과如할일이잇스면 日本은 單純한 北中의日中提携뿐만아니라 全面的提携를 希望하는바이므로 絶對反對의 方針을取하려고 지금 列國과 歐米派와의 策動에 十分警戒하고잇다

紛爭에關하야 伊太利의 武力行動을牽制키爲하야 國際聯盟規約을發動코저企圖하야 列國의注目을끌고잇는 此際五日의 倫敦의有力新聞紙는右英國의 工作에協力支持를 與하야左와如히 論하고잇다

一、英國은 伊國과 에디오피아間의紛爭防止를爲하야 어데까지 卒先하야有效適切한處置를 講할것이다

一、그리고 右解決手段으로英國은有力國의 協同을求하고特히米國과 日本을 움즉이여兩國이 聯盟과 協力할것을 要望함

一、英國은 調停에 失敗하야도 紛爭防止에 對한努力을 끗치지안코 모든方法으로써 平和保持의 手段을 講할

佛伊軍事密約說 英新聞紙暴露
聯盟制裁規約採用에佛不參加豫見
佛國은伊自由行動保障

【倫敦五日發聯合】英國政府는伊太利、에디오피아 兩國紛爭에重大決意를하야 佛國政府의 協力을求하야 聯盟規約의 制裁規定의採用도 不辭한다는 意氣를示하고잇는바 倫敦各新聞은 佛國政府의 協力은 바랄수업다고判斷하고五日의 紙上에서 佛、伊兩國 政府間의 軍事密約이라는것을 揭載하엿다 右密約은 過般佛國參謀總長 가므랑將軍이 羅馬를 訪問한 때에 締結되엿다고 傳하는데 右 密約의 結果 伊太利 政府는 國軍의 太半을佛、伊의 國境線으로부터 東阿의 植民地에 集結할수 잇게되엇다고 解釋된다 다시 에는 議定書가 附記되어잇서서 에디오피아 帝國의 處分에 對하야 如左히 規定 하엿다고한다

一、佛國政府는 에디오피아問題에 關連하야 伊國政府의 自由行動을 全然保障한다

一、佛國政府는 치브치 아디스아베바鐵道領域外의 에디오피아領土에對해서는 何等關心을 示하지안는다

따라서 佛國政府는 假令英國政府의 招請이잇더라도 聯盟制裁規定의 發動에는 同意하는일은 업슬것으로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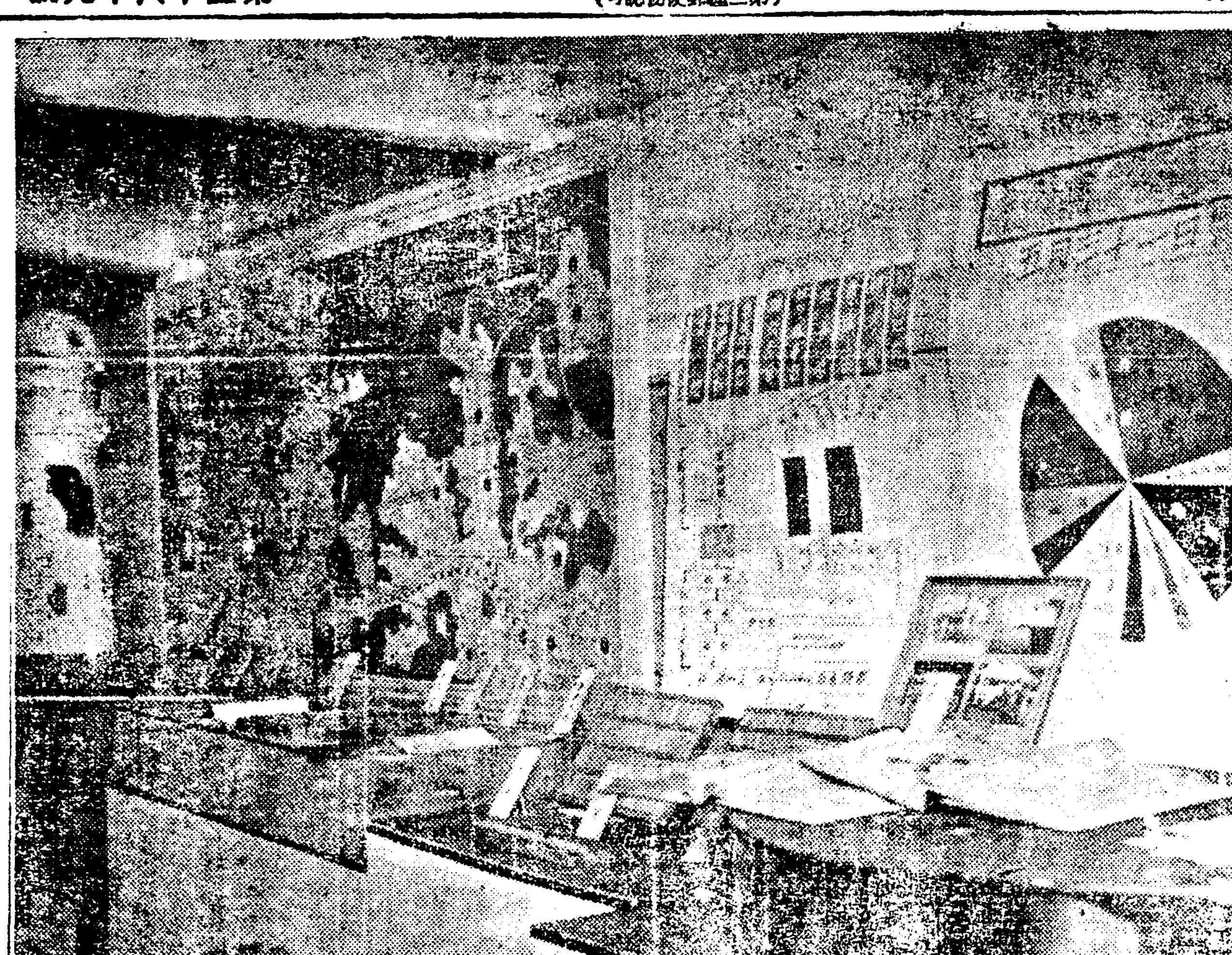
英有力新聞紙 伊國論難
日米와協力主張

【電通倫敦五日發】英國이 伊에

蘇聯側不當抗議 廣田外相强硬反駁

【電通東京電話】滿蘇國境의 紛爭問題에關하야 去一日 駐日蘇聯大使유레네프氏로부터 廣田外相에게 提出된 抗議는 越境事件의 實例로 七件을 列擧하엿스므로 廣田外相은 南駐滿大使에게 訓電을 發하야 그眞相調査를 求하엿던바 五日 그回臨에 接하엿다 그래서 近近滿蘇側에 回答을發하야 蘇聯側의 主張이 不當한 所以를反駁하기로되엇다 그리고 蘇聯이 抗議提出前에 莫斯科에서 發表하고 或은 楊木林子事件을 一方的으로發表하는等의不法行爲를 敢行하는것은 滿蘇國境의 楊木林子事件을 自國에有利하게 解決하려는 底意라고 보이며 南大使로부터도 蘇聯側의 反省을 求하고잇스므로 廣田外相도 强硬한 反駁을行할模樣이다

今日本紙朝夕刊合二十六面



◇本社新聞展覽會今日開幕 (寫眞은會場一部)

京城府鍾路三丁目二五
賣藥製造 醫療藥品 鑛山藥品 工業藥品
博愛堂藥局
電光一七七番
振京二二六〇三番

京城貫鐵洞一四〇
京城女子醫學講習所
神經科、內科、漢城醫院
金鐸遠
吉貞姬

月刊 野談 判
癸酉社

教育圖書出版
株式會社 以文堂
京城府寬勳洞一三〇番地
電話光化門一四八四番
振替京城一〇二七五番

圖書雜誌 教科書 參考書 文房具 運動具
北星堂
京城府寬勳洞一四二番地
振替京城二二四〇〇

圖書出版
永昌書館
京城府鍾路二丁目八四番地
主 姜義永
電話光化門一三三二番
振替京城六二三一番

京城府鍾路二丁目八六番地
圖書出版
博文書館
主 盧益亨
電話光化門一一六九番
振替京城二〇二三番

京城府禮智洞一〇一番地
新舊書籍 出版發行 都散賣業
太華書館
主 姜夏馨
振替口座京城八七三四番

京城鍾路三丁目八〇
書籍雜誌 出版販賣
和光書林
振替京城一三九一九番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十五
新舊書林
主 盧益煥
電話本局、六二一番
振替口座京城一八五二番

京城府寬勳洞一二三番地
書籍雜誌卸小賣 文具
東光堂書店
電話光化門三七〇番
振替京城一六一二番

京城府寬勳洞十八番地
阮堂先生全集發賣所
翰南書林
振替京城四四七八番

京城府鍾路二丁目(靑年會館下)
京城樂器商會
電話光化門一九七七番
振替京城八九二一番

京城府仁寺洞二〇七番地
オフセット印刷 プロセス印刷 石版印刷
安田商會
電話光化門一一五三番
振替京城一四八二九番

運動用品專門商
市仁寺洞內
百球堂運動具店

運動用品專門商
市寬勳洞內
中學堂運動具店

運動用品專門商
市中學洞內
崔學基運動具店

文川面明孝面
面長 李永暉

德源北城面新安里
申昌益

元山

德源北城面雲城里
申允玉

咸鏡線文坪
洪 義直

咸鏡線文坪
申 合熙

德源修士院治療所
劉 永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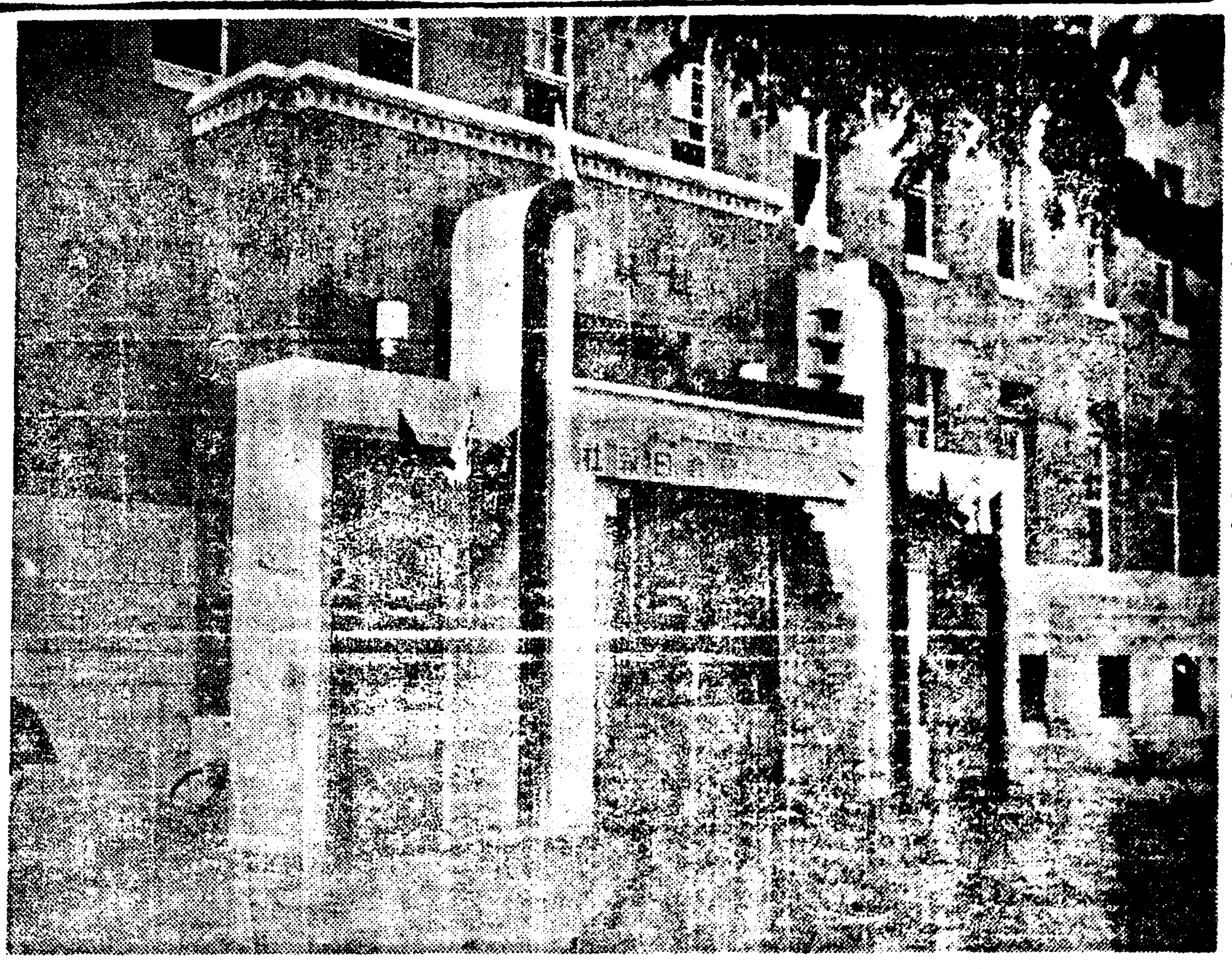
德源北城面沙屹川里
陳 錫鳳

咸鏡線文坪
閔 京九

德源北城面沙屹川里
陳錫鳳

德源北城公立普通學校
金德俊

咸鏡線文坪驛前
救世醫院 李英漢


본사 정문 아페 락성식축하 「아ー치」

待望의是日은오다
空陸에亘한祝賀色
來賓諸氏께進呈할記念品가지가지
本社飛行機自祝飛行

劃期的大盛儀
今日◈本社屋落成式

본사사옥 신축락성식은 드디여 오늘오전열한시부터 만천하독자와 믿일반 민중의 황송스러운축복아래 태평통(太平通) 일정목본사대강당에서 성대한막을 열게되엿다 이날아침에는 공고한초석우에서서 이강산 이민족과가티 전도가양양할 본보의장래를 축복코저 상공에는본사비행기가 아침해人발에은익을나부끼며저공축하비행을행하며 본사옥상에는 수소구(水素球)를띄워 본사의씩썩한의긔롱끗업시 나타내기로 되엿다 이날본사에서는 식에참석하시는손님에게 한분도빼지안코 수부(受付)에서 귀명함을바든후 꼬회장과식(式)『프로그람』과 락성축하기념그림엽서(落成祝賀記念繪葉書)와 본사사오신축공사강요(工事綱要)와 및『코로다이프』판 신축락성기념사진화보(新築落成記念寫眞畫報)를 드리기로되엿다 열한시정각에 본사영업국장 문석준(文錫俊)씨의 개회(開會)로 식을열은후 악대의주악이잇슨다음 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씨의 식사(式辭)와 본사주필 서춘(徐椿)씨의 역독본 본사총무국장 김괴범(金璣範)씨의 공사보고(工事報告)가잇고 뒤이어 래빈측의 축사가 잇슨다음 본사편즙차장 함상훈(咸尙勳)씨의 축전 축사랑독 이잇고 본사사장 으로부터 공사청부인 왕공온(王公溫)씨에대한 포상(褒賞)이잇슨후 주악으로써 식을 맛추게되엿다 식이끗난후에는 오후령시반부터 본사후정에 특설한 피로연석상에서 피로연을 마춘다음 한시부터 본사가약삼개월동안 고심노력하야 자신을가지고신문의제작되는 총과정과 및신문문화(新聞文化)의 력사적발전과그현세를 일목료연하게 알수잇도록진렬한 신문전람회로 안내하기로 되여잇다

> 락성식에 참가하시는분에 대한 본사의 희망
>
> 가、점차로오시는분은 광화문(光化門)이나 경성부청(京城府廳)압 정류장에서 내리십시요 자동차로오시는분은 본사정문아페까지 오실수잇습니다
>
> 나、식에 참석하시는분은 수고시러우시나 수부(受付)에 귀명함을 내어주십시요

四百八十萬圓經費
萬五百町砂防工事
三百三十六萬圓이勞賃으로散布될터
明年度砂防事業豫算

금년도부터 개시실시된 제이기사방사업은 시공총면적십이만칠천백팔십정보、경비총액오천팔백만륙천이백원의 큰계획으로위선 본년도 국비(國費)사업비전사십정보에 륙십만원、도비(道費)사업삼천백륙십칠정보에 백이십륙만륙천팔백원、락동강(洛東江)류역(流域)사업오천구백정보에 이백칠십사만삼천오백원、합계일만백칠정보에 사백륙십일만삼백원의공사를 시행할예정인바 명년도는 계속해서그정계획에긔준하여 면적일만오백이정보에 경비사백팔십일만마삼백원의사방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엿고 각사업별면적은 다음과가튼데 경비의 약칠할즉 삼백삼십륙만 여원은 노임(勞賃)으로 해서공사 시행지에산포될모양이라한다

	面積	經費
	町步	圓
▲國費事業	一、四[illegible]	[illegible]
▲道費事業	[illegible]	[illegible]
▲洛東江事業	[illegible]	[illegible]
計	一〇、[illegible]	四、八[illegible]

租價橫領한農監
元山에서被逮

【元山】 원산경찰서 사법계 바(朴)형사와평전(平田)량형사는 지난사일오후삼시경 원산역전 원일려관(元一旅館)에한녀자를 다리고 투숙중인 자칭 권오진(權五鎭)이라는 사람이 행동이 수상함으로 소환취조하엿던바 의외에도 그는 경북 안동읍 룡세동(榮世洞) 동양 척식회사 농감 권호상(權允相)(三五)으로 판명되엿는데 그는작년 전긔안동에서농감이것을 맛기로 소작인에게서 버임마누천여근의판도입전 사백여원을 가지고 그의애첩권섭이(權燮伊)(三○)를다리고 도망하여 행방불명이 되엿던바그만 운수가진하여 원산서에 체포된것인데 여죄나업는가하여 현재 원산서에 유치하고 엄중취조중인데 소비금액은 모다소비해버리고 겨우륙백원가량바게업섯다고한다

仁川初等校
懸賞音樂의밤
一大盛況을豫期

【仁川】 귀보한바인천공개초등학교를 망라한현상음악대회는금륙일밤당지내리(內里)례배당에서열리게되엿다 일등상의 시계는어느희교 어떠한어린이의 손에가될것이며 부상품의 『컵』은 어느합창대의 점령이 될것인지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의 가슴에뛰어올으는 경쟁열은인천주유의대장관을 일우리라하며당일밤심판원의 씨명은다음과가다

徐興學 黃材景 萬內興一 小谷千代子 裡見誠 鄭福順

料亭에數日間監禁

【平壤】 상업닦평양부내 서문통(西門通)평양공사주임(平安公司主任) 기상연씨의집에는 동씨의친척인 부내신양리(新陽里)거상순(金祥淳)(二五)에게서의 한통에게감금되여 중국료정취선루(聚仙樓) 에서 사일 간이나 감금되어잇스니 도와달나」는에스、오에스의 지급신호를 밧고 놀라여평양서에 고발하여 동서에서는계원이 현장에 급행취조한결과 김상순은 가옥을 신축키위하여 금전의필요를 늣기어 대동군남곶면남종리(大同郡南串面南松里) 김규영(金奎永)(三一)부내설암리(薛岩里)박성렵(朴成燁) 경상리(慶上里) 김두연(金斗淵)(三七)등삼명에게지난달삼십일 감금되재로 기생수명을부르고 륙십여원 회계를내인후 수백원의 계산을하게되여마지막에는 구원의전화를하게 되엿인바 일당을 자기취조한결과토지수천원짜리를 최후로사취하려든 죄상이판명이 되여 계속취조중이라한다

總督府後庭에
博物館基地는

조선통치이십오주년의기념탑으로 총독부에서본년도부터 금후 삼개년 계획으로 건설할종합박물관(綜合博物館)은 오일오전열시반부터 총독부제 일회의실에서 산전(山田)대성총장 가등(加

安東省內同胞
要救急者가五萬
滿洲人까지五十五萬人多數
總督府서도救濟方針講究

끈임업는토병화(土兵禍)와 흉작(凶作)으로인하야압록강(鴨綠江)대안안동성(安東省)지방일대의조선인 만주인농민으로 형언할수업는참상에 빠진리재민수가약오십오만명가량이 된다는데성공서(省公署)에서는구제대책으로 식량배급비로 삼만오천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할것과 중앙정부로부터 순경자금을 팔만원의보조를바들것과 농업자금배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교섭할것과 리재민구제위원회를 조직하야의연금을모집할것 등의실행안을 세워진행중이라는바 조선총독부도이방면의리재조선농민(罹災朝鮮農民)약오만명에도구제대책(救濟對策)을 강구코자 협의중이라한다

百餘臺를竊取한
自轉車窃盜逮捕

【平壤】 이일오후 여섯시경 평양부내 경제리(經濟里)에서 자

被害者가叩頭百拜
犯人釋放을哀願
잡고보니七男妹가진赤貧老人
警察司法係에人情劇一幕

자긔의 재물을 훔처간 도적을 경찰과 협력하야 애를써서 잡고나니 그도적은 륙십이가까운 적빈자로 안해와 일곱명의어린 자식들을 오죽 그의 한손으로 먹여가던 가엽슨사정이 판명되여오히려 미워하고 분해하던피해자가 허리를굽혀가며 그범인의석방을 경찰에애원하는 층은한인정극이 잇섯다

시내 례지동(禮智洞)사번지남전의원(南田醫院) 김남표(金南杓)는 지난일일에 자긔약국에서 녹용일백이십몸메를 도난당한후불합을참지못하야 소관 동대문서(東大門署)에 급보하는동시에 몸소 형의자를 지적하야 범인을체포케되엿는데 그범인인즉 시외왕십리(上往十里)사는 김지영(金[illegible])(六七)이란사람으로 일곱명의 어린자식과안해를거나리고근근히 지나가던중 전긔남전의원에 조끔 안면이잇는것을긔회로 그와가티 잘못을범하엿던것으로 목하동대문서(東大門署)에류치되여잇는데 동서에서도 그정상을가긍히생각하고더욱히피해자가 동일동서에와서 도로혀석방을애원하는만큼 미구에 훈계석방할모양이라한다

鑛夫二人壓死

【江華支局電話】 사일오후세시강화군길상면 장흥리(吉祥面 丈興里)하덕창(河德昌)소유 토굴장에서 일하고잇든 인부 안성(安城)출생 향기봉(黃基奉)(三○)은 갑작히 굴이문허지면서 흙에깔린것을 즉시 던필합혀치고구조하여스나이미절명이되엇다

今日午後二時부터
一般觀覽者에公開
場內의大異彩百年後新聞記者彫像
本社新聞展覽會開幕

조선에 신문이잇슨지 이미 반세긔이상!아즉도세계신문계의 현상을한곳에모아 소개해보지못한것을 본사가이번에 세가지 경진경사를마증을 긔회로 막대한물질적희생과 무형한노력을 소비하야가며준비한 신문전람회는 드듸여 오늘로 개막을보게되엿다 오후한시부터 두시까지는 초대인사의 관람에이바지하고 일반에게는 오후세시부터 공개하기로하얏는데 일반이주의할것은 전람회의정문이 본사동측뒷문이므로 이문을 사용키로되것이다 (사진은 백년후신문기자상)

◇…寫眞은 東京留學生對徽文野球戰 (昨日徽文球場에서)

對徽文高普第一戰
留學生軍大勝
歡迎野球初日盛況

12A—1

東京留學生野球團對 徽文高普의野球戰은 昨五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金日培(球)、朴兼煥、元小者三君審判아래 徽文先攻으로開始한바 專門級과 中學級의對戰인지라 實力의差判然하야 留學生軍壓倒的 優勢裡에 十二A對一로快勝하엿다 이날觀衆은無慮千餘名에達하야盛况을呈하엿다

【第一回】△徽文金四球、盧中飛 金一盜 하야 金勝三▣ 一壘失에 生還 崔三▣에 金慶二三▣挾殺 宋游▣△東京金四球(代走李駿)로나가二盜 陳三▣에李三壘에서刺殺 李起左飛失 金游▣ 李游直으로몰녀섯스나 徽文一點을先取하다

【第二回】東京朴三振孫四球로나가裵中前安打에二進朴四球로滿壘되다金四球에孫生還陳三壘强襲安打에裵生還陳三壘强襲安打에나아가補飛에朴生還 金三進 陳도二進 李游▣一壘惡投에金·陳生還 李二進 金中飛 李三振으로留學生軍도리혀四點을리ー드하다

【四回】△徽文三者凡退△東京金游▣ 陳三▣ 李游▣軟性安打로나아가二盜 金四球 李中越三壘打에李 金生還 朴四球(代走陳)로나가二盜 孫四球로滿壘 裵四球 朴死球 金 陳四球의連續的四球에李 朴 孫 裵生還 李二壘로몰녀섯스나一擧六點을加하다

【第七回】▲徽文朴의 左前安打가잇섯슬뿐이다 △東京金四球에二盜、陳左飛、李中飛에金三進、金泳三壘强襲安打에金生還하야또一點을加하니 이에反하야徽文은 一回에一點을어덧슬뿐으로 得點치못하다(閉戰六時五十五分)

三壘打 李駿鎔

二壘打 金舜模、金慶復

徽	1	0	0	0	0	0	0	0	0
東	0	5	0	6	0	0	1	0	A

12A 1

【徽文】
6金舜模 5.1.9盧英允 2.9.1金慶復 8崔昊洙 1.5宋在球 3朴壽憚 7金禹鎬 4崔鳳模 9.2洪 燦柱

徽文		東留
31	打數	33
4	安打	9
0	犧打	0
5	盜壘	8
8	三振	3
3	四死	12
6	殘壘	10
4	失策	2

【東留】
5金泰浩 6陳門變 3李起卿 2[illegible] 8李駿鎔 1朴禹 4[illegible] 9[illegible] 7朴[illegible] 7金永河

올림픽의氷上代表
펜귄軍來京

【東京特信】 世界올림픽氷上代表金正淵、李聖德君等을中心으로한東京世界部員一同은 이번夏期休暇를利用하야 [illegible] 時에 元山에서 [illegible] 運動을行할터로 一行十餘名은十日밤東京을떠나 十二日夜에入京할터이라한다

中等籠球리ー그
京師勝捷

籠球文部主催 中等籠球大會 中央高普리ー그戰、京師對 第一高普戰은五日에 第二高普코ー트에서 行한바 京師가이겻다

○京師 [illegible] 第一高普×

京師34 (16 / 18) 28 一高普

都市對抗野球
平壤實業勝
對城津戰에

都市對抗野球 朝鮮豫選第一日平壤實業對城津鐵道第一回戰은 五日午後四時三十八分부터 京城球場에서 柳(球)藤井、石井、日置(壘)四氏審判下에 平實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六對零으로 平實快勝하야 今六日午後四時에 釜山鐵道와對戰케되엿다 閉戰六時三十八分

平實	2	0	2	0	0	0	0	0	2
城津	0	0	0	0	0	0	0	0	0

0—6

【平實】
9白基珠 6倉田 3木原 8熊谷 2松本 4金親 5渡邊 7阿部 1渡 1菊地

平實		城津
32	打數	34
7	安打	5
1	犧打	0
3	盜壘	0
3	三振	2
11	四球	2
11	殘壘	9
2	失策	2

【城津】
8龍野 7東田 5藤川 3藤根 6大崎 2岩見 4岩 9鄭仁煥 1猿渡

文理大籠球明日入京

旣報=文理科大學籠球部一行七明七日午前七時四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入京할터이다

★今日의動運★

▲老童陸上競技大會는 午後一時부터 龍山鐵道運動場에서

▲東京留學生對延專野球戰은午後四時半부터 徽文球場에서

▲都市對抗野球準決勝戰=全京城(殖銀)對大田鐵道(午後一時)平壤實業對釜山鐵道(午後四時)以上京城球場서

京城府仁寺洞一八八番地
東亞燒酒 東亞細亞酒 東亞業酒 釀造販賣元
東亞產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 一、二七五番
振替口座京城一四、四二四番

京城東大門外新設里
株式會社 서울護謨工社

京城府安國洞一五五番地
日本ペイント特約店
塗料各種 ゴム製品 朝鮮塗料洋行
電話光化門二四九番
振替京城九四七〇番

京城府中林洞一五〇
太平商工合資會社
電話本局九七三番
振替京城一六六六八番

京城中林洞一五五番地
大陸護謨工業株式會社
電話本局三三八番
振替京城一一二八一番

京城鍾路三丁目二七番地
鮮滿土地鑛山ブローカー 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六六七番

發條搗鑛製造元
朝鮮鐵工所
京城府中林洞二三九
電話本局 八六三番 三四四番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
東洋機械商會
主 金相彬

マスター石油發動機 グロリー石油發動機 ヤンマー石油發動機 ホーオー式ロール粉搗機 發賣元
中央商工社營業部
代表者 權潤國
京城府蓬萊町一丁目四八
電話本局四七三五番
振替京城六一二五番

京城府鍾路二丁目七十三番地
各種時計 卸商 普信堂時計舖
電話光化門一二三番
振替京城二八五一番

パラマウント映畫株式會社朝鮮代理店
朝鮮興業株式會社
配給部 紀新洋行
京城府鍾路三丁目六二番地
電話長光化門一七四九番
電略 (受電コウカモン 發電キシン)(又ハ)パラマウント キシ

京城府樂園洞
自轉車及附屬品直輸入 卸商合名會社 安仲商店
電話光化門九一三番
振替京府一〇一八九番

京城府公平洞二十五番地
典東旅館
主 孫 義日
電話光化門(長)六九九番

京城府貫鐵洞二一八 鍾路四街邊 鍾閣直後洞
高麗旅館
主 高弼權
電話光化門一二二七番

天和金、貴金屬、眞珠寶石、化學發明
天和堂本店
京城府竹添町二丁目一七一番地
電話光化門一三二〇番
振替京城一二八二六番

化粧品石鹼卸商
大榮商會
京城唐珠洞一六八
電話(光)二[illegible]番
振替京城九七[illegible]番

祝朝鮮日報社新築落成記念

强精補血
强精强壯新藥

八大醫學博士의證明

醫學博士 小村榮三 先生
醫學博士 朴昌薰 先生
醫學博士 今村豊八 先生
醫學博士 金夏植 先生
京城帝大講師 醫學博士 李甲洙 先生
京城醫專病院 內科敎授 金永獻 先生
仁愛醫院長 醫學士 仲尾次景榮 先生
松岡醫院長 醫學博士 松岡寅夫 先生

幸福의源泉은 오—즉健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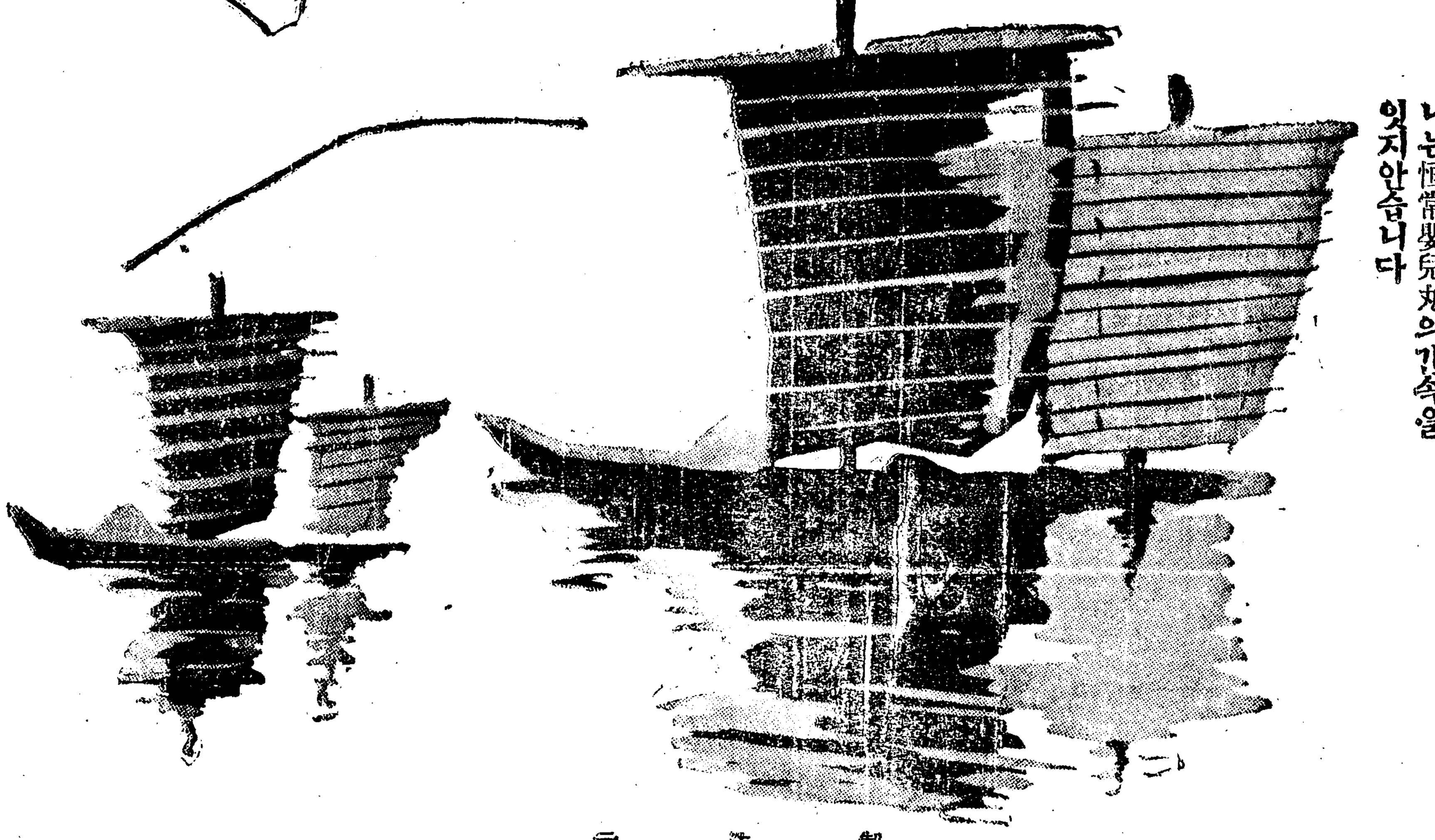
여러분은 現代와가치 華麗하고살기조흔 文化時代를 오죽不健康으로 享樂치못한다면 그얼마나不幸한일이겟슴니까? 더구나光速가튼스피—드와計算器가튼 正確性을 要求하는 現代生活에 一抄一抄우리의精力—健康을削奪當하야 縱橫無盡한經綸을가지고도病床에누어눈물흠뿌리며世上藥이란藥은다服用하여보지만大槪는對症藥이나一部榮養劑에 不過하야우리의 深切한要求에酬應치못한다。 그러나多幸한일이다。 우리를살이려고 大自然은우리에게 綜合的藥인同時榮養劑인蔘茸精이란福音을주엇다。 蔘…人蔘과 茸…鹿茸에 對한靈効는새삼스러히말치안커니와, 錦繡江山의 獨特한氣候風土에서 자라나世界에冠絶한 高麗人蔘! 北國深山幽谷에서氷雪를비집고나오는藥草의 軟한싹만먹고 新鮮한피의凝固로된 고비가튼 鹿茸! 이두가지는人體가要求하는모—든動植物의榮養과藥物中最高의精華요結晶이다。 거기다가有機性鐵及其他漢藥의强精强壯藥을錦上添花格으로配合하야 고化學的最精最完한方法下에그「精」만抽出한合理的藥劑로서그빗은보기만하여도살노갈듯한赤褐色시로부液狀에 그맛은 透明弱酸性에다 人蔘固有의芳香이 浮動하고 한컵푸만먹어도 人體에곳吸收同化되야 補陽、補陰、補血、强壯、 强精의目的을全體的으로直席에서達하야 先天的氣不足人、後天的病弱人은生의 復活를어들거시오아즉健康한분은 朝夕으로 一盃式하면將來에 不老長壽로나날이달녀진 現代文化를 더욱享樂할것이다。 詳細는文獻을無代進呈中이오니請求하시와보시라。

用法及用量
大人은一日十瓦乃至二十瓦、食後四瓦乃至六瓦를淸水、砂糖水、參湯、牛乳等에 二三倍로稀釋하야服用할十五才以下는半量、七才以下는三分之一

適應症
精力增進、萎黃病、急性慢性貧血腎病、小兒發育不全、神經衰弱、히스테리ー、慢性消化不良、諸病恢復期、月經不順、産前産後其他一般病弱者

바다의觸感!

碧空은놉고
물결은잔잔한데
帆船은고요히흐르며
갈매기도悠悠히날으
는明朗한바다!
躍進의씨—즌—
男性의씨—즌!
蔘茸精 의榮養素를마
시고 幸福스런 健康한
몸으로 이어려운 녀름
을愉快히보냅시다



慢性胃腸諸病에는 ナロ—(나로—)

効力으로팔니는藥

ナロー 百病의源은 消化不良에서 胃腸의衰弱期인夏節은왓다
本劑의特長 洋漢藥을理想的으로 配合하야우리의腸胃와體格에附合하고 累試累驗의百發百中之妙藥!
ナロー 靄靄는大敵! 胃腸病이면ナロー 胃腸의健全은萬病을退治한다 一、二週日分이면 新舊積滯를一掃하고身體는自然히健康할것이다

全國有名藥房에서販賣합니다

아름다운性品을 가진 어머니는 어린이를 사랑으로길음니다。 貴婦人! 사랑스러운 애기를 爲하여

嬰兒丸(영아환)

의準備를 하시엿슴니까? 애기가 肝氣나 驚風、靑便의氣色이 보이거든 躊躇말고 嬰兒丸을차즈시요 그러면 貴여운애기는 病업시무럭무럭자라납니다 責任感이잇는善良하어머니는恒常嬰兒丸의가속을잇지안슴니다

製造元 朝鮮京城府授恩洞三二
朝鮮商會新藥部
電話光化門一七八五番・振替京城一〇三八六番